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 -복음으로 여는 요한계시록-

이사야 66:22, 요한계시록 21:1

정윤돈 목사님

* 사66: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소중한 자격까지 주셨으니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 주역으로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현상과 가정 가문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한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울인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으로 힘들어 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어려움을 주신 절대적인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언약적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 요한계시록을 향한 소망과 영적 배경

(1) 목회자의 길로 이끈 요한계시록의 체험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당시 기독교계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 다미션교회 사건도 있었고, 1988년에 '빅 파더'라든지 '그레이트 크로스'라든지 지구 멸망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다. 조용기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같은 책들도 큰 인기였다. 나 역시 그때는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에 관련 서적을 20권 넘게 찾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으며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품기도 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chat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과거에 헛갈렸던 내용들을 물어보니 꽤 명쾌하게 대답해 주더라. 물론 질문을 잘해야 한다. '에스데스킨터 신학이나 개혁신의 중심으로 해석해 줘'라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도구들을 통해 옛날에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복음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내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영적인 체험 때문이었다. 대학시절,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리즈 같은 꿈을 계속 꾸게 하셨다. 그 환상과 꿈들을 보면서 '아, 재대로 공부해야겠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때 꾸었던 꿈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천사가 나타나 나를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늘나라 상급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황금과 보석이 깔도 없이 쌓여 있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아들을 돌보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기에 이렇게 큰 상급이 쌓였다는 것이었다. 이어 천사가 할아버지의 창고도 보여줬는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의아해하며 "우리 할아버지도 훌륭한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라고 물으니, 천사가 텔레파시처럼 내 마음속에 대답했다. "너의 믿음이 할아버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너의 눈에 할아버지의 거대한 상급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똑같이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누리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부자로 누리는 사람과 고동당하는 사람이 같은 공장에 살지만 보는 세상이 다르지 않은가. 천국으로 우리가 예배에 성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 요한계시록의 기록배경 :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부터 약 20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밧도 섬으로 유배를 당한 상태였다. 섬이라는 곳은 당시로서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사실 사도 요한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성령의 동행함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고문을 당하고 집에게 쫓기며, 카타콤 같은 어두운 동굴에서 수십 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평범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무언가 확실한 소망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사단의 세력과 로마 제국의 왕권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대적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정복하며 세계복음화를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실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여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신앙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래에 대한 언약

이 없기에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라. 그는 물구덩이에 갇히고 돌에 맞는 극한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개인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의 유일한 아픔이자 한이었고 눈물이었다. 복음을 아는 우리가 왜 여전히 눈앞의 작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며 염려하고 있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꿈, 질병, 자녀문제, 사업과 직장의 위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언약이 확실히 붙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질 수밖에 없다.

(3) 환난 속의 보호와 상징적 숫자의 의미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 관계없이 누리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7년 대환난이나 3년 반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상징적인 숫자들이다.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그 절반인 '3.5(3년 반, 42달)'는 불완전함을 그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상징한다. 헬라어시대에 3년 반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내용의 99%는 이미 구약성경에 있는 것과 같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어렵지 않지만, 성경 전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타지소설처럼 느껴질 뿐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해석의 지혜를 주시고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목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세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같겠지만 필박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도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도 성도들을 견디게 한 힘이였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 지도자가 스스로 백마를 타고 나타나 자신을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백마를 타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국을 이룰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참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유일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5)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 같은 상징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앞으로 나타날 세상의 강력한 왕권들을 말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영원할 것처럼 필박하지만,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란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전쟁을 벌이고 군사력을 과시하며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무기나 과학기술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와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성도는 시대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확신을 가진, 그 한 사람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다.

(6) 믿음의 금메달을 따는 삶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경주하는 자 중에 1등은 한 명이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1등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빠지고 갈등하며, 염려하고 남 탓을 하다가 불신앙에 빠진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금메달을 따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미래의 비전, 즉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안에 확신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전의 고통스러운 땅을 다 없애시고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며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단 1초도 마귀에게 끌려다니 필요가 없다.

(7)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영적 시각 우리가 겪는 고민과 염려는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현재 북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하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런 북한과 선 천사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 맛 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온갖 불평을 쏟아낸다. 예전에 내가 사역하던 고아원에서는 명절이 되면 갈 곳 없는 졸업생들이 다시 돌아오곤 했다. 한 선배가 "사회 나가서 돈이 없어 라면만 먹고 산다"며 고생담을 늘어놓자, 매일 정해진 식단만 먹어야 했던 후배가 "와, 라면을 마음껏 먹다니 정말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죽었다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어떤 이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관점에서 따라 이루어지고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8) 인생의 단절마다 오는 환난과 성령의 보호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제앙은 하나가 끝나면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처럼 묘사된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닮아 있다. 사춘기 때는 대학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막상 대학에 가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다. 취업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직장생활의 흑암이 얼굴이 가득해진다. 결혼하면 나이가 실지만, 결혼생활의 행복은 잠시이고 본격적인 고통과 책임이 시작된다. 아이가 없으면 없어서 고민이고, 있으면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7년 대환난'과 같은 육아전쟁을 치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직원이 부럽고, 직원은 사장이 부러운 법이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천국이 왜 이렇습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며, 스스로 고통의 길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성도는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가 비로소 천국에 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

(9) 충성된 증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계1:5)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확신이 생기며, 그 확신이 있는 만큼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넘치게 된다. 예수님이 왜 '충성된 증인'이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하신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는 단순히 주님 혼자 부활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이냐 순교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10)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요.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누구든 관계없이 주님은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다면, 응답이 보장 우리 세대에 오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250년이 걸렸듯,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본문의 말 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우리 참사관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후대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거대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오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11) 불신앙의 경계와 답은 지의 사망 성도는 단 0.1초라도 사단이 주는 불신앙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짧은 불신앙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1년, 10년 뒤로 늦출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거주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에 쓰셨느냐"고 묻는다. 여러분은 비랑 끝에 간신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복음의 능력으로 앞장서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번 멸절에도 가문 안에서 믿음의 복신을 가지고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느님은 보이실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처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려는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들어가는 말 :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이단들의 오용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렇기에 상징적인 표현이 많으며, 이를 악용하여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스스로 백마를 타고 나타나거나, 요한계시록의 '증거 장막'이 대한민국과 천에 이루어진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믿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한 논란과 바른 해석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 중 하나가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표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사이비 단체가 이 숫자를 자신들의 교리에 이용해 왔다.

(1) 이단 사이비 단체의 잘못된 해석

1) 여호와 증인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1874년, 1914년, 1918년, 1925년, 그리고 1975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지정하며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한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입했다 는 식으로 교리를 변개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자속의 존제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상암구장에서 열린 그들의 집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길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길거리에 서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2) 신천지 신천지 역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차면 종말이 온다고 강조해 왔다. 초기에는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더니, 정작 원인이 넘어서자 이제 는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만 그 수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말해 바꿨다. 또한 신천지에 들어오면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주 이만희 역시 90세를 넘은 고령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허황된 이야기에 빠져 모든 삶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된다. 성도는 오직 참된 복음 위에 서서 이러한 미혹을 분별해야 한다. 참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2) 성경 속 숫자의 상징적 의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에는 각각 대응하는 숫자가 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매우 익숙하다. 예를 들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합산한 값이다. 축구 선수의 등번호를 보면 특정 선수가 떠오르듯,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곧 명확한 상징이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도 역시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12 :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7 :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안식, 완성된 계획을 의미한다.
- 3 :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 4 : 동서남북 온 세상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세계를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하게 묘사된 것도 이 세상의 완전함을 뜻한다.
- 6 : 하나님의 완전함(7)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결함을 상징한다.
- 10 : 십계명과 같이 충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 1000 : 매우 큰 수, 무한함, 혹은 영원한 통치기간을 나타낸다.
- 3.5 : '7'의 절반으로, 불완전함과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다. 42달 혹은 3년 반으로 표현되는데, 엘리야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흉년의 시기와 같이 환난의 때를 의미한다.

• 2 : 증언과 확증을 상징한다. 유럽 교회의 종탑이 대개 두 개인 이유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구약의 구원받은 자) × 12(신약의 구원받은 자) × 1000(충만한 수)를 곱한 결과이다. 이는 어느 특정한 시기나 단체의 인원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완 벽하고 충분한 숫자이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이단에 속지 말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와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3)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헌신의 현상 성도는 대단한 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계획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된다. 최근 우리 교회의 램프 두 명이 홍콩에서 어학연수와 선교훈련을 받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 없이 그저 놀다만 올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간표 속에 대구의 강력한 대학선교팀과 만남을 주셨다. 지금 우리 램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강도 높은 복음훈련과 선교현장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미래의 주역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어떤 이는 적은 액수를, 어떤 이는 큰 금액을 자신의 형편과 중생에 따라 헌신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축원한다.

2. 천년왕국에 대한 논란과 신학적 해석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두 번째 큰 논란은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기독교신학 안에서 해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입장, 즉 천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뉜다.

(1) 천천년설 먼저 천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재림하신다

는 주장이다. 주로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등에서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지금의 육신을 입은 채 천 년 동안 정수하며 평화로운 시대를 보낸다고 본다. 구약 시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와 같은 정수의 축복이 실제로 일한다는 것이다.

(2) 무천년설 반면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의 '교회시대'가 곧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개혁신주의 장로교단이나 루터교 등에서 주로 채택하는 신학이다.

(3) 후천년설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이 땅에 먼저 복음적인 평화의 시대, 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든 후에 오시든, 혹은 지금 이 영적인 천년왕국인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요한계시록 관련 서적을 보며 세대주의적인 천천년설의 관점도 매우 흥미롭게 보았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하거나, 복음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천년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있다면,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3. 새 예루살렘과 12지파 보석의 상징적 의미

성경은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12가지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비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등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토록 다양한 보석들을 만들어 주셨겠는가? 그것은 장차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가치있는 곳인지를 우리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ChatGPT에게 성경의 묘사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려보라고 시켜 보았다. AI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12보석의 기둥과 벽돌, 계단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성의 모습을 그려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제 영광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천만 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 한 순간도 현실의 고통에 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아침, 낮, 오후로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이미 보장된 승리를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4.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중요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데에는 매우 중요한 목적들이 담겨 있다. 그 핵심적인 언약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승리의 언약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다. 결국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네브림의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놀이,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다.

(2)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언약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약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먼 과거의 역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눈앞의 고난과 아픔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선행하게 보이기를 축원한다. 초대교회의 전도를 생각해 보라. 당시의 전도는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식의 단일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감옥에 갇혀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도 예수 믿자"라고 전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승리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에 절대 속지 마라.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만큼은 1등이 되어야 한다.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속지 말고,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칭찬받은 성도와 교회라 되라는 미션 요한계시록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칭찬받은 성도와 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중 라오디게아교회는 꾸지람만 들었고, 에베소와 버가모, 두아디라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다. 반면 빌라델비아교회와 서머나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한다. 천년왕국은 서머나교회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와 가정, 가문, 그리고 학업과 직장에서 죽도록 충성한다. 성경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보상을 받고 싶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시키는 일을 다 하고도 "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된 종의 자세다. 우리는 세상의 노조처럼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율예이는 자들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법정근무시간을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계산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을 잃고 죽도록 충성할 때 모든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갖대로 재고 계산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4) 사탄과 죽음의 영원한 멸망과 최후승리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죽음, 불신앙의 세력이 결국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 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18장에서는 사탄의 세력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다. 또한 20장에서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밤만 괴로움을 당하며, 사망과 음부조자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원수 마귀와 죽음의 공포는 영원히 박살날 것이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소중한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이 계시록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산업현장을 최고의 축복된 장소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